

먹구름 잔뜩 낀 '광주 입주 경기'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 영향
9월 전망치 전국 평균 이하
6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
광주·전라권 입주율은 83.1

광주지역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분양경기에 이어 주택사업자들의 입주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10월 주택산업연구원 따르면 올 9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70.0으로 전달(69.3) 보다 소폭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88.8), 인천(81.8), 세종(80.0)이 80선, 대구(79.1), 경기(78.7) 등 대부분 지역이 60~70선을 기록했으며, 제주(50.0)가 유일하게 50선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 세종과 더불어 지방 주택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른바 '대·대·광' (대구·대전·광주) 지역에서도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9월에는 입주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9월 광주 HOSI 전망치는 68.4로 전달(78.2) 보다 9.8포인트 떨어졌다. 광주 HOSI 전망치는 지난 6월(86.9)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8월 HOSI 실적치는 68.7로 전달 실적치(69.5) 대비 0.8p, 8월 전망치(69.3) 대비 0.6p 하락했다. 서울(97.8)과 대구(95.8)가 90선, 인천(80.0)과 세종(80.0)이 80선을 기록했다. 그

외 대부분 지역이 60~70선을 기록한 가운데, 울산(50.0), 충북(50.0), 제주(50.0)가 50선을 기록했으며, 충남(41.1)은 유일하게 40선을 기록했다. 8월 광주 8월 HOSI 실적치도 68.4로 전달(77.2) 보다 8.8p 떨어졌다.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 Housing Occupancy Survey Index)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하고 있는 단지의 입주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매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100을 기준치로 잡고 그 이상이면 입주 여건이 양호하고 미만이면 입주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또 8월 전국 입주율은 80.0%로 2017년 10월(81.9%) 이래 22개월 만에 80%선을 기록했다.

수도권(87.4%)은 2.9%p, 지방(78.4%)은 6.2%p 입주율이 상승했다. 이중 서울 입주율은 92.4%에 달한다. 광주·전라권 입주율은 83.1을 나타냈다. 8월에는 '세입자 미확보'(32.9%)와 '기존 주택 매각 지연'(32.9%), '잔금대출 미확보'(22.9%) 등이 수분양자들의 미입주 사유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의 일부 입주단지에서 대출규제에 따른 계약 파기시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택사업자들이 각종 입주마케팅 수단을 동원해 입주율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전국 60개 단지 총 3만2천288세대로 조사됐다. 광주와 전남 입주 예정물량은 842세대와 468세대로 나타났다. **박석호기자 haिता2000@srb.co.kr**

전남신보, 순천 소상공인 간담회 금융기관과 보증지원 방안 논의

전남신보보증재단(이사장 최형천)은 10일 제단 본점 2층 경영지식배움터에서 순천시 금융기관 실무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 지역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수출 규제 및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순천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와 자금난 해소 방안을 찾고, 제단과 금융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해드림 특례보증, 전남도 및 순천시 이차보전사업 등 순천지역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자금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됐다. 최형천 이사장은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단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신보 순천지점(지점장 류철수)은 이날 "올 4분기 150여명의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4분기 전남도 및 순천시 이차보전 사업이 시작되며, 접수는 전남신보보증재단 순천지점에서 가능하다. **박석호기자 haिता2000@srb.co.kr**

'화장품 해외직구? 국내가 더 싸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해외직접구매가 편리해지면서 화장품을 해외에서 사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배송비를 포함하면 오히려 직구가 비싼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수입 브랜드 화장품 15개 제품의 국내외 가격을 비교, 조사했다. 단품으로 구매할 경우 13개 제품은 국내 구매가, 2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해외직구 소비자의 구매행태를 반영해 면세한도 내에서 최대 수량을 구매할 경우 8개 제품은 국내 구매가, 7개 제품은 해외직구가 저렴했다. 단품으로 구매하면 13개 제품은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 구매가에 비해 최저 0.7%에서 최고 95.3%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은 2개로 최고 7.2%의 차이를 보였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기본 배송대행료 약 1만3천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단품 구매 시 총 구매가에서 배송대행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해외직구의 이점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국제 배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까지 여러 개의 제품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총 15개 중 8개 제품의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 구매가에 비해 최저 1.7%에서 최대 42.5% 비쌌다. 소비자원은 ▲국내외 판매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매를 결정할 것 ▲사은품, 현지 배송료 등 거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할 것 ▲제품과 구입 국가 등에 따라 통관 방법과 면세 한도가 다르므로 제품별 상세 정보와 관세청 정보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



조명 인테리어 구경났네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 8층 생활전문관에 조명 편집숍 '라잇나우'가 세계 각국의 인테리어 조명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보이는 '버블 램프 시리즈'는 백색의 컬러와 소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더불어 독특하면서 아름다운 조형을 보여준다. **광주신세계 제공**

8월 지역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170명

광주 73명·전남 97명
임대주택 146호·185호

지난달 새로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한달 전보다 9% 줄어들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달 총 170명이 신규 등록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5천7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신규 등록자 수는 한달 전(6천290명) 보다 9% 감소했다. 전체 임대사업자수는 45만2천명에 달했다. 수도권은 4천343명으로 전달 4천875명 대비 10.9% 줄었다. 서울도 1천721명으로 전달 2천28명 보다

15.1% 감소했다. 지방은 1천382명으로 전달 1천415명에 비해 2.3% 하락했다. 부산이 27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78명, 충남 131명, 대전 114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73명과 97명이 신규 등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298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1만1천607호 대비 11.3% 감소한 규모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145만 4천호에 달했다.

수도권이 7천115호로 전달 8천313호 보다 14.4% 줄었다. 서울은 2천956호로 전달 3천647호 대비 19% 감소했다. 지방은 3천183호로 전달 3천294호에 비해 3.4% 하락했다. 광주와 전남은 각각 146호, 185호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이후 임대사업자 제세 혜택 등 등록 여건에 대한 변동이 없어 신규 임대등록이 올해 월평균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ता2000@srb.co.kr**

'보험사 꺾기 관행 개선해 달라' 중소기업중앙회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을 초청한 가운데 '제3차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를 갖고 자동차서비스산업계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고용진 의원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하도급납품단가조정 소분과위원회로 지난 8월 자동차인증부품 활성화 협약 체결 등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으로는 정국선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이사를 비롯해 정비업, 부품판매업, 법퍼수리업 등 자동차서비스산업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자동차서비스업은 '완성차 제조업-자동차서비스업-보험업'으로 이어지는 자동차산업 가치사슬구조에서 중요한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대부분 영세기업들로 구성돼 있어 전·후방산업대기업들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보험사 꺾기 관행 개선과 대금지연 지급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담은 총 7개 건의과제를 고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2019 달빛(광주·대구) 청년들의 광주 명소 투어

달빛 청년 어울림 한마당

날 짜

· 2019. 10. 11(금) ~ 12(토), 1박 2일

대 상

· 광주·대구 청년 (각 40명/총 80명, 선착순 모집)

접수기간

· 2019. 7. 30(화) ~

코 스

· 1일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광주비엔날레 ▶ 와이즈파크 ▶ 평민마을양동시장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 2일차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 광주공원 ▶ 천연염색체험 ▶ 시상식

참 가 비

· 무료 (호텔 숙박, 기념품, 단체티 증정)

주요프로그램

· 마추한 달빛 : 문화지식 배움 및 청년 교류 활성화
- 오리엔테이션 및 미션 수행을 통한 팀구성, 서바이벌 게임 등

· 깊어진 달빛 : 근현대 주요 역사 문화시설 및 미식장소 탐방
- 공연·전시·행사, 체험, 여행, 커피 등 키워드별 체험 / (충장로) 광주 향토음식 체험 / (동명동) 카페거리 투어 / (양림동) 평민마을 등 광주지역 근대문화유산 투어

· 익숙한 달빛 :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문화 심층 이해
-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미디어아트 체험 및 천연염색 스킨 제작 / (광주공원) 산책 및 자유소통 / (문화전당) ACC 전시관람 /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관람 / (ACC디자인호텔) 향수제작 체험

참가문의

· 무등일보 사업국 062)606-7778

주 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주 관 : **광주문화재단**
Gwangju Cultural Foundation

후 원 : **무등일보** **해일신문** **엠디에스앤씨**